1, December, 2025 Vol. 107

| Bi-Weekly |

신영 ESG

"UNFCCC COP30 지나면서 국내 탈석탄의 시대 성큼 다가와"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삼성전자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SG aware MSCI USA value ETF(EVUS)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UNFCCC COP30 지나면서 국내 탈석탄의 시대 성큼 다가와

한국 정부, UNFCCC COP30에서 2035NDC 제출, PPCA 가입

UNFCCC COP30 무치랑 결정문을 채택하면서 폐막

이달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늦어진 11월 22일(현지 시각)에 폐막함. 올해는 파리협정을 채택(2015년 12월)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의장국 브라질은 컨센서스에 바탕한 기존 협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기후 위기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을 가속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치랑(Mutirão, 공동협력을 의미) 결정문'을 주도하였고, 50여 시간의 막판 철야협의 끝에 채택됨.

무치랑 결정문에는 전지구적 적응 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로 담겨있으나 화석연료 감축·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산유국 반대로 제외됨

정부에 따르면, 무치랑 결정문에는 전지구적 적응 목표, 정의로운 전환,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 주요 의제가 '벨렝 정치 패키지(Belém Political Package)'로 포괄해 채택됨. 이 결정문에는 ▲과학·형평성·신뢰·다자협력에 기반하여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공동협력의 중요성, ▲파리협정 정책 주기의 본격적 운영, ▲글로벌 이행 가속기(Global Implementation Accelerator), 벨렝 1.5℃ 미션(Belém Mission to 1.5) 등 각국의 기후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적·자발적 전지구적 이행 플랫폼 출범, ▲2035년까지 적응 재원 3배 확대, ▲기후정책-무역 간 연계 고려 등이 담겨 있음. 그러나 지난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 결정문에 담긴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ing away from fossil fuels)'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감축·폐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 도입은 산유국 반대로 끝내 무산됨.

도표 1. UNFCCC COP30 폐막

자료: COP30,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부의 탈석탄동맹(PPCA) 가입에 따라 투자에서도 '탈석탄' 기조가 강화될 것

우리 나라는 이번 COP30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고 공식 발표함. 또한 석탄발전의 종식을 목표로 전 세계 180개 이상의 국가·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탈석탄동맹(PPCA)에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가입함.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2040 탈석탄' 구상을 발표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61기의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조기 폐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국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화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법안이 발의되기도 함. 이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는 투자에서도 '탈석탄'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 분야에서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축소하는 적응으로 관심이 확대됨

한편 파리 협정은 완화, 적응, 지원을 연계하는 포괄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그 동안에는 이중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완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등을 축소하는 분야인 적응으로 관심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적응은 기후 영향에 대응하여 자연계와 인간계를 조정하고, 피해를 완화하며, 기회를 포착하는 것을 의미임. 여기에는 홍수 방어 시설과 가뭄 저항성 작물부터 사회 보호 및 계획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정책적 조치도 포함됨. 특히 기후 위험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응은 과학적, 지역적, 그리고 토착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 파리 협정은 적응 능력을 강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며, 취약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계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적응 수준을 높이고 있음. 2023년에 당사국들은 적응에 관한 세계적 목표에 따라 UAE 세계 기후 회복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2년간의 UAE-벨렝 작업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음. 또한 이번 COP30에서는 적응 관련한 글로벌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음.

모건스탠리가 최근 발표한 '지속가능한 신호, 기관 투자자 2025'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적응' 관련 투자에 대해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최근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지속 가능한 신호, 기관투자자 2025(Sustainable Signals, Institutional Investors 2025)'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적응' 관련 투자에 대해서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조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속가능 투자 기회 중 재생에너지(30%)를 가장 중요한 분야로 꼽았고, 뒤를 이어 에너지효율(28%), 기후 적응·회복력(23%)등을 꼽았음. 특히 '기후 적응' 분야는 지난 해 6위에서 올해 3위로 급등하며 중요성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특히 데이터와 분석, 수자원 인프라, 전력망 현대화 등에 대해 높은 관심

또한 향후 3년간 기후 적응 투자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으로 데이터와 분석, 수자원 인프라, 전력망 현대화라고 응답해 향후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음. 반면, 기후 적응 투자를 저해하는 애로 사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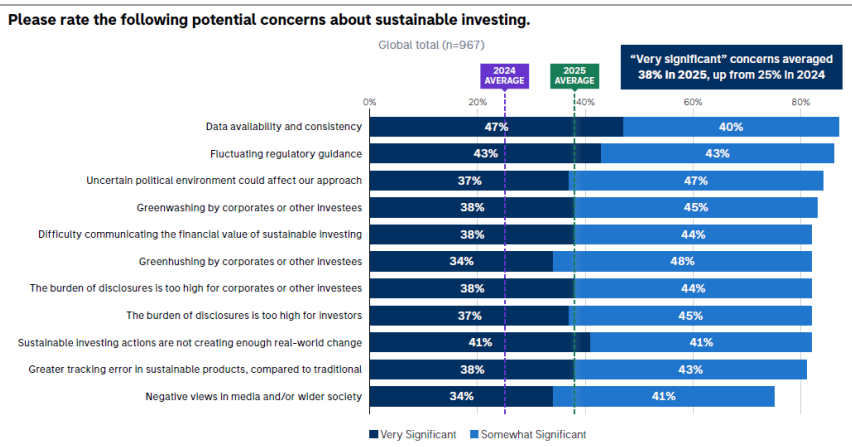
로 정책 불확실성, 공통 언어 및 프레임워크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위험 모델 등을 지적해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함을 인정함.

또한 기후 적응뿐만 아니라 기후 위험에 대한 인식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의 75%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물리적 기후 리스크가 자산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35%는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가격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응답함. 또한 응답자의 53%는 인프라·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평가 시 기후 회복력이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응답했는데, 북미 투자자의 경우 이 비율이 65%에 이를 정도로 가장 높았음.

한편 외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데이터 가용성 및 일관성, 규제 지침의 변화, 정치적 불확실성 등의 위부 위험이 직전 해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편 이와 같은 지속 가능성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외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설문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 가용성 및일관성 문제를 '매우 심각한 우려'로 본 비율은 지난 해 32%에서 올해 47%로 증가함. 그 외에도 규제 지침의 변화 지난 해 28%에서 올해 43%로 증가했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큰 우려로 본 응답도 지난 해 29%에서 올해 37%로 증가함.

도표 2. 올해는 외부 요인이 더 큰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자료: Morgan Stanley,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OP30을 지나면서 국내에서는 탄소배출량 감축, 탈석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한편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기후 적응에 대해 점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와 관련된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이처럼 COP30을 지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협력이 강조되고 한국 정부의 강화된 2035NDC 제출, 탈석탄동맹(PPCA) 가입에 따라 향후 투자에서도 탄소배출량 감축, 탈석탄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기후 적응에 대해 점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투자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리튬 일변도 깨지나…피크 에너지, 5억달러급 '세계 최대 나트륨이온 ESS' 수주

- 피크에너지, 주피터파워향 4.75G 규모 나트륨이온 에너지저장장치(ESS) 공급계약 체결. 나트륨이온 ESS 단일계약으로 가장 큰 5억달러 규모 계약
- 나트륨이온 배터리, 리튬 기반 배터리 대비 비용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우위. 다만 가격 문제 등으로 주류 기술로 자리잡기까지 다소 시간 필요
- 금번 계약은 미국 내 나트륨이온 ESS 공급망 확충과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Comments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와 방전 시간이 긴 장주기 ESS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리튬이온 기반 배터리 외 나트륨이온, 아연, 흐름전지 등 차세대 케미스트리도 부각 중
- 그 중 나트륨이온배터리의 경우 원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 CATL은 올해 2세대 나트륨이온배터리를 ESS용으로 양산을 시작하였으며, 12월 EV용으로도 생산
- 장기적으로 전력망 ESS 배터리에 활용 가치 부각 전망

–Analyst 박진수

LG유플러스, KCGS ESG 평가서 5년 연속 종합 A…환경 부문 'A+'로 상승

- LG유플러스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이드라인에 의한 생물종 다양성 리스크 평가 시행,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여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하며 경영 체계 개선
- 향후 자가 태양광 및 전력구매계약(PPA) 기반 재생에너지 조달 강화 계획

Comments

- LG유플러스는 한국ESG기준원이 발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5년 연속 종합 A(우수) 등급을 획득
- LG유플러스는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TNFD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 리스크 평가를 시행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
- 이홍렬 LG유플러스 ESG추진실장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ESG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

–Analyst 정원석

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기후위험 공시(SB261) '시행 제동'…배출 보고법(SB253)은 예정대로 간다

- 미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주의 '기후관련 금융위험 공시법(SB 261)' 잠정 중단
- '기후 재무리스크 공시법(SB 261)'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는 연 매출 5억달러 이상인 기업에게 '26년 1월 1일부터 ▲기후 관련 재무 위험 공개, ▲위험 완화를 위한 대응 조치 보고 등을 의무화한 법으로 본격 시행을 몇 주 앞두고 중단됨
- SB 253(배출량 보고법)은 '예정대로' …스코프 1·2 이어 3단계까지 확대

Comments

- 미국 ESG 공시의 '기준'이자 실질적인 전국 파급력을 지녔던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험 공시법 시행에 제동 → 제9순회항소법원은 항소가 심리되는 동안 집행을 일시 중단하되, 본안 심리는 '26년 1월 예정
- SB253은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직접 배출량(스코프 1·2, 2026년부터)뿐 아니라 간접 배출량(스코프 3, 2027년부터)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는 법으로 법원 중단 명령 대상에서 제외 → SB 261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ESG 공시 전략을 완전히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반도체 담당 박상욱 T.02)2004-9616 / park.sang-wook@shinyoung.com

삼성전자(005930.KS)

매수(TP 120,000원)

ESG, 반도체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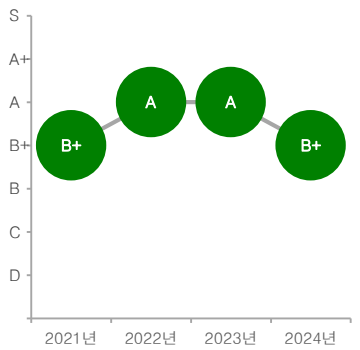
현재주가(11/28) 100,5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B+	A	B
Bloomberg	97.50	97.70	88.20	75.2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11. 28)

시가총액(억원)	5,949,236
배당수익률(25F,%)	1.9
외국인지분율(%)	52.3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16인	19.8 %
국민연금공단	7.8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0	44.4	79.8	81.1
KOSPI대비 상대수익률	3.2	17.5	22.3	15.5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13,291	14,889
폐기물 발생량	천톤	1,315	1,349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20,284	23,488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조직	지속가능경영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R	%	0.023	0.022
기간제 근로자 비율	%	1.2	1.2
여성 근로자 비율	%	33.7	33.1
사회 공헌지출	조원	0.4	0.3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 전 통지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배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분기배당 (4 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11 회, 사외이사 참석률 100%

ESG 관련 최신 활동

삼성전자, 혁신 스타트업 육성 앞장…"C랩으로 동반성장"

(그린포스트, 25.11.20)

- 삼성전자가 개최한 C랩 아웃사이드 7기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는 스타트업 30개사와 졸업사 5개사가 참여해 기술 성과를 발표하고 투자자 및 산업계와 협력 기회를 논의함
- C랩 아웃사이드는 사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우수 사내벤처가 스타트업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수 인재와 기술이 지역 안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임

삼성전자, 스마트폰 활용 산호 복원 다큐 공개..."기술로 환경 지킨 창의적 ESG"

(그린포스트, 25.06.13)

- 삼성전자는 프랑스 니스에서 개막한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에서 자체 제작 다큐멘터리 <코랄 인 포커스> 시사회를 개최함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호초 생태계의 현실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술이 복원 작업에 기여하는 과정을 담음
- 총 17개의 3D 산호 복원 지형도가 완성됐고, 새로 심어진 산호 개체 수는 11,046개에 달함. 복원된 산호초 면적만 해도 10,705제곱미터에 이름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의 핵심 안전에 답하다

(한국재난안전뉴스, 25.06.10)

-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까지 총 9,841명의 위험성 평가 전문가를 양성했으며, 협력사를 위한 '첨단산업 공동 훈련센터'도 개관하여 안전 역량을 강화함
- 2024년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폰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근절에 나섰다고 밝혀, 임직원의 직업병 예방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직업병 대한 전사적 노력은 실질적인 임직원 보호 조치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중요한 부분임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18년	[G]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2019년	[E] 반도체 업계 최초로 USF 1개에 대한 카본트러스트의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2020년	[G] 최초 사외이사 의장 선임
	[E]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유럽, 베트남, 중국 사업장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2021년	[E] 반도체 업계 최초로 Air Science Research Center(탄소포집연구소) 설립
2022년	[ESG] 新환경경영전략 공개
2023년	[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에 따른 글로벌 인권원칙 발표
	[S] 현업 밀착된 실용 교육 등을 제공하는 The UniverSE(The University of Samsung Electronics) 론칭
2024년	[ESG] ESG행복경제연구소의 기업 ESG 평가등급 발표서 2년 연속 종합 S등급 및 1위 달성
	[S] DX부문 제조사업장 19곳에 대해 '노동인권 리스크 평가' 실시 및 관련 리포트 발간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플래티넘 등급의 의미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은 글로벌 제조사업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했음. 이는 단순한 환경인증을 넘어 반도체 공정 특유의 고부하 폐기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산업적, 정책적 함의를 가짐. 반도체 생산은 화학물질 사용량과 공정 단계가 많아 폐기물 감축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으로 분류됨. 삼성전자는 고형폐기물, 유기용제, 슬러지 등 주요 폐기물 항목에 대해 고순도 재활용 공정 도입, 폐기물 선별 및 정제 효율화, 협력업체와의 재활용 체계 일원화 등을 통해 매립 제로 수준까지 감축했음. 이러한 접근은 'End-of-Pipe 중심의 저감 방식'이 아니라 '공정 재설계(Process Redesign) 기반 감축'에 가깝다는 점에서 차별적임. 즉, DS부문은 폐기물 처리의 외주화가 아닌, 전 생애주기(LCA) 기반의 공정-설비-폐기물 통합 관리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E) 성과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됨

도표 1.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폐기물 제로 매립 제로' 인증

자료 : 삼성전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사를 위한 '눈높이 컨설팅'의 구조적 효과

반도체 공급망은 고난도 품질·안전 기준을 요구하며, 중소 규모 협력사는 ESG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음. 삼성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는 협력사의 ESG 역량을 단순 진단하는 수준을 넘어 공정 안전 및 환경관리 수준을 단계별로 상향시키는 동반성장형 모델로 기능했다고 판단됨. 특히 DS 부문 특유의 안전, 화학물질 규제 준수 체계를 협력사 수준에 맞춰 제공함으로써, 중소업체가 ESG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교육, 평가, 공정개선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급망 전체의 위험도를 낮추고, 반도체 제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 당사는 삼성전자의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이 개별 기업의 ESG 활동을 넘어 산업 전반에 구조적 효과를 확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용 가능하다고 판단함

도표 2. KC이노베이션에서 발표한 소부장 눈높이 컨설팅 주요 성과

자료 : 삼성전자, KC이노베이션,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iShares ESG aware MSCI USA value ETF (EV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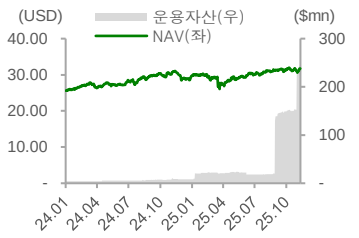
Key Facts

상장일	2023/01/31
기초지수	MSCI USA Value Extended ESG Focus Index (USD)
구성종목수	233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242.5
시장가격(USD)	31.76
NAV(USD)	31.75
총보수(%)	0.18
운용사	BlackRock

Top Holdings (기준일: 2025.11.26)

ALPHABET INC CLASS A	6.04%
META PLATFORMS INC CLASS A	4.33%
JPMORGAN CHASE & CO	2.82%
BERKSHIRE HATHAWAY INC CLASS B	1.74%
ABBVIE INC	1.53%
PROCTER & GAMBLE	1.53%
HOME DEPOT INC	1.51%
JOHNSON & JOHNSON	1.38%
EXXON MOBIL CORP	1.29%
COCA-COLA	1.29%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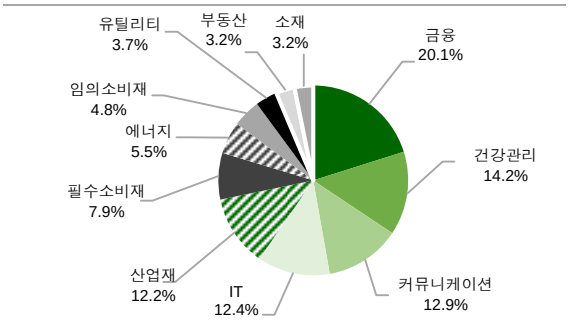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SG aware MSCI USA value ETF (EVUS)는 2023년 1월 상장된 ETF로, the MSCI USA Value Extended ESG Focus Index (USD)를 추종하는 ETF임. 모 지수인 MSCI USA Value Index는 PBR, 12개월 선행 EPS, 배당수익률 등을 통해 미국의 대형, 중형 가치주를 식별함. 기초 지수는 먼저 모 지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업 및 문제(예: 민간 총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담배, 발전용 석탄, 오일샌드 등)에 연루된 기업을 제외함. 각 산업에 대해 MSCI는 주요 ESG 문제(예: 기후 변화, 자원 부족,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식별하고 그런 다음 각 기업은 업종 내 비교를 통해 주요 문제에 대한 노출 및 전략적 대응을 기반으로 평가함. 최종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 ESG 점수가 더 높은 회사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하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함. 기초 지수는 분기별로 검토 및 리밸런싱이 진행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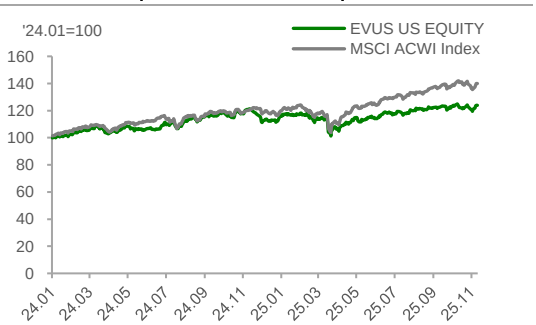
EVUS는 모닝스타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신규 투자 자금 유입이 많았던 Top10 ESG 펀드에 들었던 펀드 중 하나로 미국 중대형 가치주 중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통해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 노출, 성과 및 위험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ESG 점수 기업에 대한 노출을 극대화한 ETF임. 이에 미국의 중대형 가치주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중 동종업계 대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급이 낮거나 논란이 심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고 ESG 관행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EVUS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ackRock,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6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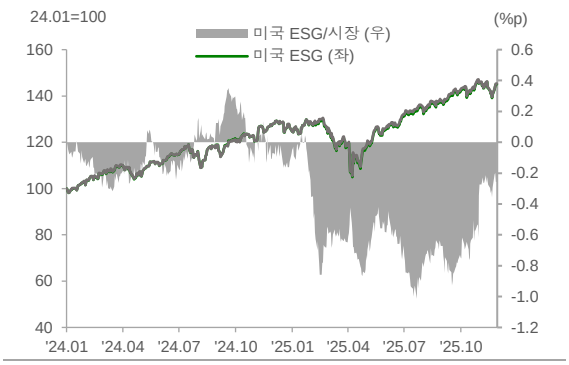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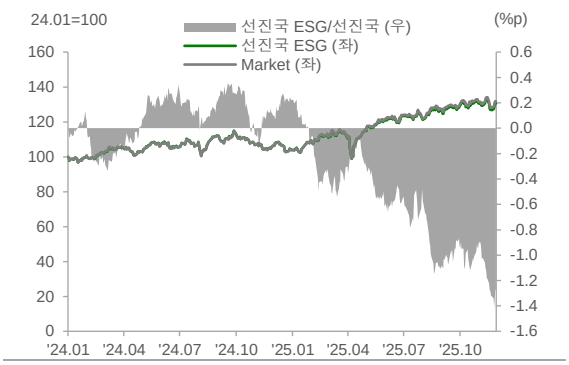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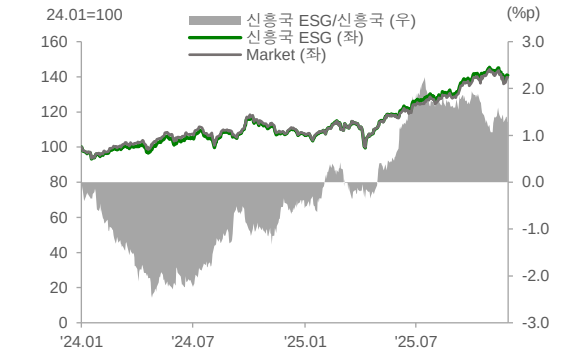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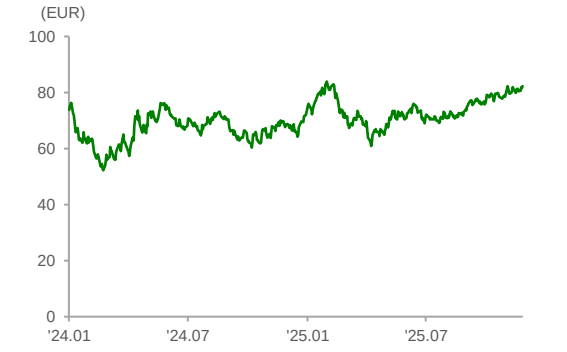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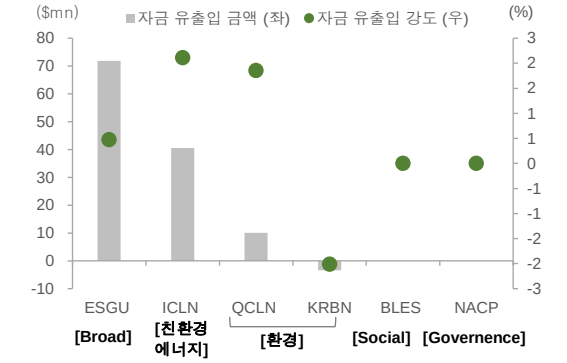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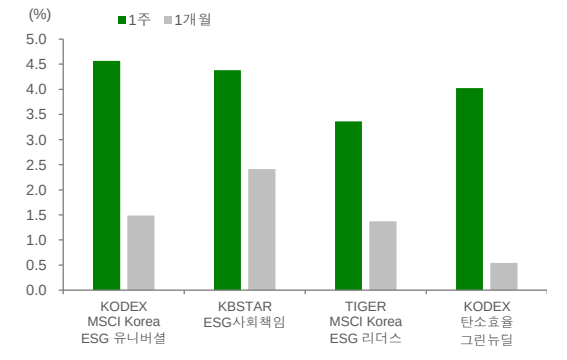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3,273	60	79.2%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9,688	13	9.2%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254	13	5.9%	13.4%
4	Social	5,530	5	5.3%	5.2%
5	Governance	399	3	0.4%	3.1%
6	기타	42	3	0.0%	3.1%
ESG 전체		**105,185**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5,138	3.19	-1.13	4.72	15.60	72	-43	0.5	-0.3
	ESGV	11,732	3.49	-1.58	4.47	15.91	-6	149	0.0	1.3
	SUSL	1,016	2.89	-1.11	5.72	16.16	12	-112	1.2	-11.0
	NULV	1,910	2.11	1.40	4.65	12.37	10	32	0.5	1.7
	NUSC	1,263	3.83	-0.36	3.83	14.09	3	-49	0.2	-3.9
	ESGE	5,534	2.31	-2.41	8.26	18.60	0	-77	0.0	-1.4
	ESGD	10,574	2.31	-1.28	2.72	6.85	188	604	1.8	5.7
	EAGG	4,331	0.50	-0.33	1.35	3.50	38	532	0.9	12.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1,925	4.16	-0.61	15.49	33.24	41	-73	2.1	-3.8
	TAN	950	4.21	-1.35	15.65	50.86	31	-99	3.3	-10.5
Environment	QCLN	542	6.79	-3.34	15.14	44.23	10	-120	1.9	-22.2
	SPYX	2,466	3.21	-1.03	4.99	15.89	-5	69	-0.2	2.8
	CRBN	989	2.92	-1.45	4.41	13.37	0	-153	0.0	-15.4
	KRBN	170	1.60	2.05	10.94	17.16	-3	-54	-2.0	-31.9
Social	BLES	126	2.44	-0.60	1.64	8.30	0	6	0.0	4.5
Governance	SHE	277	1.73	-2.31	1.86	7.49	-1	-1	-0.3	-0.3
	NACP	58	2.99	-1.71	7.58	17.65	0	-9	0.0	-14.8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16	4.57	1.49	31.96	60.37	0.0	-20.8	0.0	-17.9
FOCUS ESG 리더스	141	2.22	-0.45	14.04	33.62	0.0	50.0	0.0	35.5
KODEX 200ESG	523	4.70	2.09	34.72	64.44	0.0	-65.1	0.0	-12.4
KBStar ESG 사회책임	983	4.38	2.41	38.59	67.02	66.5	-1,779.7	6.8	-181.0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10	4.50	1.33	31.38	59.24	0.0	3.8	0.0	3.5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21	3.36	1.37	40.58	70.35	-5.0	-44.2	-4.1	-36.4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326	4.02	0.54	27.52	53.59	0.0	-17.2	0.0	-5.3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34	4.02	0.29	27.05	52.23	0.0	-10.5	0.0	-7.8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20	4.03	0.50	27.44	52.69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28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025.11.17) 공시는 잘하는데 사고는 막지 못한다…국내기업 ESG 실행력 위기 - ESG경제

인증획득, 공급망관리 강화에도 성과 정반대…이론따로 실제 따로
관리체계와 실제 리스크 관리수준 괴리 커…대기업 산재 2배 증가
서스틴베스트, 2025년 하반기 ESG 평가 우수 100대 상장사 발표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유한양행, 동아ST 등 우수기업 선정

E (환경)

(2025.11.18) 미국 태양광 제조업, 석탄 고용 추월…퍼스트솔라 3억3000만 달러 투입 - Impact-on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다섯 번째 공장…2027년까지 3만 개 일자리 창출 전망
한 기업이 석탄 산업 고용의 13%
중국 배제 규정이 투자 촉매
미국 태양광 제조 7배 확대

(2025.11.19) 전기차 원가 30% 이상 낮은 중국…IEA "투자 확대되면 격차 줄어" - Impact-on

중국 주도 뚜렷…그러나 투자 확대를 통해 격차 줄일 수 있어
내연기관차 판매, 2017년 정점 대비 30% 감소

(2025.11.20) 도요타, 미국 EV 침체 속 하이브리드에 1조3300억원 투입…미 전역 5개 주 생산라인 확장 - Impact-on

공장별 투자 배분…웨스트버지니아에 최대 규모
EV 세액공제 폐지에 판매 '급감' 전망…2030년 시장점유율 절반으로
현대차도 전략 수정…"EV·내연기관 유연 전환 구조"

(2025.11.20) 구글 AI 모빌리티, 브라질서 감축 효과 입증…연료 210만리터·배출 4000톤 줄였다 - Impact-on

영국 전역 제네시스 고객 대상 '스마트 홈 충전' 지원
전동화 전환의 '경험경제' 단계 진입

(2025.11.26) 폴리코튼 '분리·재생' 첫 산업화…서크, 패션 폐기물 병목 돌파 - Impact-on

파타고니아·자라 등 글로벌 브랜드 줄줄이 채택
프랑스에 세계 첫 산업 규모 공장 건설

(2025.11.26) 까르푸만 성공했다…프랑스가 '재사용 포장' 상업화한 유일한 시장이 된 이유 - Impact-on

프랑스만 상업적 확장 성공…까르푸의 가격 전략·규제 효과 결합
재사용 확산의 분기점은 '유통업체 참여'…프랑스의 규제가 성장 견인
재사용 모델 도입을 위한 실무 지침…가격·진열·직원 교육이 핵심

(2025.11.18) 전환금융으로 돈 흐름 바꾼다…블랙록·HSBC 동남아 대거 투입, 도이체방크도 목표 키웠다 - Impact-on

블랙록 GIP·펜타그린, 동남아 인프라 라인 강화…싱가포르 FAST-P 지원
도이체방크, 전환금융 포함해 2030년까지 9000억유로 지원 목표

G (지배구조)

(2025.11.19)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됐다지만…자산규모별 격차 여전 - ESG경제

핵심지표 준수율 올랐어도 규모별 불균형 지속
주주권 보호 항목 개선…독립성·다양성은 과제

(2025.11.19) 국내 500대기업 역대급 영업이익에도 기부금 증액은 '찔끔' - ESG경제

CEO스코어, 영업이익 13.1%늘었지만 기부금은 3.6% 늘어
삼성전자, 올해 누적 기부금 1위…증가액은 SK하이닉스 선두
'호황' 조선·기계·설비 기부금 22% 증가…석유화학 업종 감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되는 상황이라 기부금 줄인듯"

정책 ESG 뉴스

ESG

(2025.11.21) 미 항소법원, 캘리포니아 기후위험 공시(SB261) '시행 제동'…배출 보고법(SB253)은 예정대로 간다 - Impact-on

법원 "SB 261 잠정 중단"… 미국 기업들 첫 공시 직전 제동
SB 253(배출량 보고법)은 '예정대로'…스코프1·2 이어 3단계까지 확대

(2025.11.21) EU, SFDR 전면 개편…PAI 보고 의무 '대형 금융사만' 남긴다 - Impact-on

DNSH 요건 전면 삭제 및 펀드 분류체계 정비
환경·사회 영향 보고 의무는 CSRD 적용 대상인 대형 금융기관에만 남아

E (환경)

(2025.11.17) 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탄소크레딧은 최대 5%만 허용 - Impact-on

'2040년 90% 감축' 법적 구속력 확정…최대 5% 탄소크레딧 허용
섹터별 감축 경로 협상 시작…진행상황 2년마다 점검·목표 조정 가능

(2025.11.17) 자연위험, 국채 리스크 평가에 반영…FfB '국채 자연 모델' 공개 - Impact-on

자연자본을 고려한 국채 리스크 분석과 정책 소통을 위한 실무 도구
정책 참여 이니셔티브 출범…자연자본 채권 시장 통합 논의 본격화

(2025.11.17) 중국, COP30서 "미·EU 무역장벽이 기후목표 저해" 직격- Impact-on

미국 불참 속 중국의 '기후 외교' 강화
"이중잣대"로 규정한 중국의 반발
"7~10% 감축" 목표… 중국·EU 상호 비판 격화

(2025.11.18) 국회 기후특위, 中企 지속가능성 공시 지원 예산 증액 추진 - ESG경제

김소희 의원, 금융당국 "ESG 공시 의무화, 결단 내려야 할 시점"
금융당국 "공시 로드맵은 아직…국제 흐름보다 늦게 않게 시행"

(2025.11.19) EU, CBAM 면제 요구한 인도 일축…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부담 불가피 - Impact-on

"EU "CBAM은 처벌 아닌 탄소누출 방지"…점진 도입 정당화
인도 "20~35% 부담금 불가"…면제 요구에 EU는 일축"

(2025.11.20) EU, AWS·구글·MS를 금융 '핵심 IT 제공자'로 지정…클라우드 장애 리스크 직접 관리한다 - Impact-on

금융 인프라 리스크 차단 위한 직접 감독
빅테크, 규제 협력 의지 표명

(2025.11.20) EU, 폐알루미늄 수출 규제 예고…글로벌 스크랩 가격·국내 수급 압박 커진다 - Impact-on

EU 알루미늄 스크랩 수출량 126만톤으로 사상 최대
"48개국 고철 수출 제한 두고 있어"

(2025.11.20) 美정부, 日 대미 투자금으로 원전 10기 짓는다 - ESG경제

AP1000 건설에 일본 자금 최대 800억달러 투입 가능성
AI발 전력수요 급증 속, 핵심 교역국 일본 자금 활용

S (사회)

(2025.11.20) EU, AI·프라이버시 규제 완화안 공개…빅테크 수혜 논란 확산 - Impact-on

고위험 AI 규제 2027년으로 연기…개인정보 활용 문턱 낮춰
"빅테크·트럼프에 굴복" vs "혁신 위해 불가피"

G (지배구조)

(2025.11.2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배당성향',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해야"- ESG경제

기업거버넌스포럼 "별도재무제표 기준시 왜곡·부작용·사익편취 우려"

일반 ESG 뉴스

ESG

(2025.11.27) [2026 ESG 트렌드]⑧부활하는 자발적 탄소시장…무결성 개선되고 가격도 회복세 - ESG경제

탄소 상쇄를 위해 소각된 크레딧 중 "BBB 이상 등급 35%"
"등록 준비 프로젝트 중 40% 이상 BBB 이상 등급"
고품질 크레딧 강세 현상 뚜렷…양극화 심화 전
크레딧 가격 전반적 상승 전망 지배적
정부, 내년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구축 추진

E (환경)

(2025.11.18) 미 데이터센터 전력난, 빅테크 'PPA 확보'와 '지역 갈등'이 최대 리스크로- Impact-on

용량시장 비용, 소비자에 고스란히 전가
재생에너지 PPA로 '탈(脫)계통' 가속
원자력이 '궁극의 해법'
지역사회 반발, '공동체 기여'로 달래기

(2025.11.19) AI 열풍에 탄소 크레딧 '공급난'…빅테크, 직접 생산까지 나섰다 - Impact-on

은 수요 폭증…태양광·EV 중심으로 산업용 소비 기록 경신
멕시코 은광 재가동한 시에라 마드레…공급난 속 전략적 부상

(2025.11.24) 은, 태양광·EV 수요 폭증에 '전략자원' 부상…멕시코 광산 투자 다시 불붙는다 - Impact-on

ESG를 '비재무 신호'로 해석
ESG 열기 식는 와중의 차별화

(2025.11.25) 트럼프 효과? 민간 기후데이터 기업 '대호황' - Impact-on

공공 데이터 축소가 민간 시장 확대 촉발
빠르게 커지는 '지구 정보 산업'… 2030년 매출 42억달러 전망
푸그로, 플래닛랩스 등 상장 데이터기업도 영향권

(2025.11.25) 기후 리스크는 현실… 美 기업, COP30 참석 규모 오히려 증가 - Impact-on

포춘 100대 기업, COP29보다 COP30에 더 많은 인력 보내
"미국 청정에너지 관련 일자리, 전체 노동시장보다 3배 빠르게 증가"

(2025.11.25) 수소·폐타이어·배터리 공급망이 겪는 같은 문제…'자동화·데이터 인프라'로 수렴 - Impact-on

수소·해중합·추적성…서로 다른 산업이 맞닥뜨린 같은 한계
데이터 투명성 병목, 자동 추적 체계로 돌파

(2025.11.27)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로… 에어리퀴드, '세계 최초' 산업용 크래킹 실증하며 수소 무역 시대 여나 - Impact-on

암모니아, 장거리 수소 운송의 유력한 해법
"저탄소 수소 공급망의 새 길 열었다"

G (지배구조)

(2025.11.24) ESG 잘하는 기업, 매출·수익성도 높았다…"주주가치 훼손 증거 없어" - Impact-on

사회책임 지표 1점 오르면 매출 1.27%↑…주주가치 희석 우려는 기우
공급망 규제, 중간 성과 기업에 가장 효과적
"ESG는 비용 아닌 전략적 자산…인과관계 추가 연구 필요"

(2025.11.27)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하면 M&A 시장 위축된다?…오해와 진실 - ESG경제

의무공개매수 논란 재점화…'M&A 위축' 놓고 공방
"영국·EU에서 의무공개매수제로 거래 위축 없어"
일본에선 제도 도입 이후 M&A 시장 오히려 확대
100% 공개매수, '50%+1주' 등 복수법안 국회 발의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0930)	매수 : 87.41%	중립 : 11.89%	매도 : 0.7%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삼성전자	-	-	-	-	-	-	-	-

2025-12-01

삼성전자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5-12-01	매수	120000		
2025-10-15	매수	120000		
2025-09-22	매수	100000	-12.55	-5.60
2025-08-01	매수	80000	-10.15	0.63
2024-11-26	매수	73000	-21.58	-0.55
2024-09-20	매수	90000	-35.11	-28.11
2024-08-01	매수	105000	-30.24	-23.62
2024-04-08	매수	100000	-19.72	-12.20
2024-03-25	매수	95000	-13.01	-10.21

[2024년03월25일]애널리스트 변경